

4강 벤야민과 메시아니즘

◆1교시: 사적유물론과 메시아니즘

▲ 사적 유물론의 시간관과 메시아니즘의 관계-시간관을 중심으로

관념론에서 유물론으로 건너오고 있는 것이 지난시간에 말씀한 포이어바흐 테제라는 문구이다. 철학자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세상을 해석만 해왔다. 해석만 해왔다는 것은 정신적인 현상을 해석을 통해 변화를 추구해 왔지만 이는 비판된다. 이를 통해 비판하는 것은 헤겔적 관념론이다. 이제 철학이 해야 할 것은 더 이상 해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해석은 정신이 물질보다 강하다고 하는 전제이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의 명제는 뒤집는 것이다. 물질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철학자들이 자신의 임무를 느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맑스의 정언이다. 이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관념론적인 세계해석이 유물론적인 세계해석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 바로 사적 유물론의 시간이 태어난다.

사적 유물론의 시간은, 벤야민이 보고자 하는 문제이다. 첫 번째 사적 유물론과 신학의 문제도 이것이다. 벤야민이 느끼는 모순은 사적 유물론의 목적은 부르주아 계급을 전복시키는,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졌다. 벤야민이 살고 있던 당대의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위 맑스의 이론을 따라서 부르주아의 계급투쟁을 보이는 사적 유물론자들이 혁명론을 주장하는 시기였다.

그 때 이미, 벤야민이 바라보는 근대라는 시점에서 보면 사적 유물론이 더 이상 혁명의 가능성을 지니지 않은 시기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소위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이래로, 유물론자들이 부르주아 계급과 끊임없이 계급투쟁을 벌이지만 이것이 처음에는 유물론과 관념론의 진영이 뚜렷이 형성되어 계급투쟁을 벌였지만 이것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벤야민이 보려하는 것은 유물론적 진영과 부르주아적 진영이 똑같은 상태로 화합해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그룹으로 들어와 계급의 주축이 되고 있는 베이스라고 한다면, 벤야민이 살고 있었던, 벤야민이 역사철학의 문제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2차 대전이 눈앞에 있었던 시기였다. 2차 대전이 역사적 상황이 위기적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시기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발달해서 파시즘이라는 단계에 도달했다.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해,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이 파시즘이라는 진영이었고, 소련에서는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러시아혁명, 노동운동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르면 히틀러가 태어난 당대의 상황에서 러시아에서는 스탈린이 태어났다. 벤야민이 볼 때,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

왜 처음에는 부르주아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대표하는 두 개의 양대 진영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 같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억압하는, 독재 권력이 양 진영에서 똑같이 있었다.

이 양 진영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철저히 대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39년에 히틀러와 스탈린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 이데올로기의 양진영이 상호 화합체계로 들어간다. 벤야민이 볼 때, 근본적인 문제는, 벤야민은 혁명, 세계의 변혁을 원했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사고를 하게 된다.

벤야민이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자본주의적, 부르주아적 진영에는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적 유물론 진영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사적 유물론 내에서 어떤 자체 모순이 있었길래 부르주아 계급을 타파하기는커녕 불가침 조약이라는 결탁을 하게 되었는가? 사적 유물론이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벤야민이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적 유물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취지이다.

벤야민의 입장은 사적 유물론의 입장은 옹호되어야 한다. 사적 유물론이 부르주아의 지배계급을 전복해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을 역사의 주인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적 유물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를 사적 유물론은 역사적 과정에서 실현시킬 수 없었다, 사적 유물론 혼자로서는 스스로 재기하고 있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그 무엇인가가 도와줘야 하고, 그것이 신학이다.

신학과 사적 유물론의 관계하는 것이 어떤 상호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떻게 서로 도와줘야 하는가가 시간관의 문제와 연관된다.

벤야민이 사적 유물론은 그 목적에 있어서는 옳았다. 부르주아 계급을 타파하고, 혁명을 통해서 피지배계급을 주인으로 만드는 목적은 옳았지만 그것이 본래적으로 실현될 수 없었다. 왜? 시간관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적 유물론은 자기들이 자본주의적 관념 내에서 시작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체제를 허물겠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적 시간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당대의 벤야민이 보았던 사적 유물론 진영의 큰 2개의 진영이 있었다. 하나는 진보적인 당이 있었고, 그 당의 주인이 로자 룩셈부르크였다. 또 다른 진영에는 사회민주주의라는 진영이 있었다. 똑같은 사적 유물론 내에서 2개의 파가 있었다. 진보주의적인 태도를 지닌 당과 사회민주주의적인 태도를 지닌 당이다. 둘이 지닌 근본적인 차이는 혁명에 대한 생각이다.

룩셈부르크 당은 당대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마지막 프롤레타리아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혁명을 해야 한다. 폭력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의 원리를 가진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변화시켜야 한다는, 혁명은 당대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민주주의적인 당들이 갖는 혁명론은 혁명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작정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혁명은 그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맑스의 자본론이 갖는 것이 공산주의혁명은 맑스의 자본론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최대의 성숙한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 혁명이다. 자본주의가 생산력을 가지고, 자기의 모순 관계를 가지고 스스로 파멸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을 때, 마지막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 혁명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이 시간관을 받아들여, 지금 우리가 혁명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기다려야 하고, 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그 조건이 마련되도록 해야하는 것이 진정한 혁명주의자의 태도라고 본다.

전자는 즉발적인 혁명을 원했고, 사회민주주의는 혁명을 먼 미래에 두었다. 전자는 특셈부르크가 암살되는 것과 같이 사회민주주의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죽는 것처럼, 유물론 진영에서 일어났던 두 개의 세력의 승리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갖게 되었다.

사적 유물론이 사회민주주의 진영으로 갔을 때, 사회민주주의 진영이 사적 유물론이 결코 사적 유물론이 갖는 자체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적 유물론의 시간관이 진보적 시간관이다. 바로 자본주의 시간관이 갖는 시간관이 자신의 시간관을 갖고 있다. 혁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미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밀어내기이다.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소련에서는 지연된 혁명의 덕을 보며 태어난 스탈린이라는 계급이고, 자본주의 내에서는 그런 시간관을 부르주아의 기득세력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구축된 파시즘이라는 두 개의 세력이 태어났다. 이 두 개의 세력이 1939년에 서로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우지 말고 잘 지내자”라고 협약을 맺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시간관이 같기 때문이다. 벤야민이 긴 시간관을 통해 보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였다. 벤야민이 역사에서 다시 보려고 하는 것은 시간관을 바꾸어야 한다. 사적 유물론이 자체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자본주의적인 시간관인 진보적 시간관을 대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간관이 필요하다. 그것만 있다면 시간관이 달라도, 사적 유물론의 목적이 확실하다면, 사적 유물론이 애초에 실현하려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사적 유물론이 항상 이기려면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신학, 쾰추 난쟁이는 무엇보다 벤야민이 새로운 시간관으로 제시하는 또 하나의 시간관이다. 이것이 벤야민 자신이 주장하는 메시아적 시간관이다. 메시아적 시간관이 사적 유물론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만일 사적 유물론의 목적 의식과 신학의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적 시간관이 서로 만나게 되면 그 어떤 적들이 다가와도 사적 유물론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전체적인 벤야민이 갖는 지금 이야기하는 명제, 테제의 백그라운드이다. 이 전체 내에서 벤야민이 시간을 어떻게 보려학도, 과거가 왜 중요하고, 메시아적 시간관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했다.

왜 신학과 사적 유물론이 협력을 해야 하는가? 이 명제 뒤에 깔린 배경이 있다는 것이 필

요하다.

중요한 것은 메시아적 시간관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길래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 온 진보적 시간관을 전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시간관인가? 이것이 역사철학 체계가 갖는 기본 관건이다. 이를 통해 벤야민에게 과거가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우리가 근대적 시간관에 얼마나 지배당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현재라는 시간을 희생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어떤 목적을 위해 건너가는 다리일 뿐이다. 그 목적은 내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프로그램한 것이다. 내 것도 아닌 목적. 위에서 사회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주입해 낸 기획된 욕망, 기획된 목적, 기획된 자기실현이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두 번 다시 되돌아볼 수 없는 here 와 now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다.

너무 확고한 진리가 있다. 근대적 인간은 종교적 인간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시간 이외에는 다른 시간이 없다. 종교적 시간관을 갖는 사람은 천당이 있으니까 구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은 한번 밖에 없습니다. 한번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각하고 있습니까.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없다. 우리는 근대적 인간이고, 근대적 인간이기 때문에 철저히 잘 알고 있다. 현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지. 나의 삶이라는 시간, 일정량의 시간이 지금 아무것도 기쁨도 없이, 의미도 없이, 있지도 않고, 내 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지나가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뭔가 조작된 것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를 일으키겠습니까?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충전시킨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텅 빈 시간과 충전된 시간이라고 벤야민은 나눈다. 우리는 텅 빈 시간을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벤야민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것은 증오라고 했다. 그것이 순화되었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전복될 수 없다. 미움의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증오와 분노는 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 분노가 생성된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분노는 생길 수 없다. 분노가 없다는 것은 내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2교시: 메시아적 시간관이란 무엇인가

▲메시아적 시간관

벤야민이 이야기할 있는 메시아적 시간관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아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벤야민이 역사철학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과거”라는 문제와 만나게 된다. 벤야민은 바로 메시아적 시간관이라는 것을 3분법적 시간관과 구별되는 유일한 시간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분법적 시간관은 과, 현, 미래이다.

이 시간의 흐름이 목적이 미래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시간이고, 직선적 시간관이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은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과거는 근대적 시간관에서 죽은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라는 시간을 오로지 어떤 식으로만 만나게 되나하면 추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만나게 된다. 추억은 벤야민의 말에 따르면, 벤야민이 기억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기억은 여러 양태를 지닌다. 그 중에 벤야민은 3분법적, 근대적 시간관에 깊이 내재해 있는 것을 다름 아닌 멜랑콜리라고 말한다.

멜랑콜리라고 할 때, 벤야민이 이야기하는 것은 멜랑콜리는 다름 아닌 되돌아 올 수 없다는, 사라졌다, 죽었다고 생각한 어떤 것들을 이미 죽어버린 것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것을 그리워하는 기억의 방식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추억이라는 기억방식의 근본적으로 깔린 정서는 “절망이다. 아무리 내가 그리워해도 결국은 되돌아 올 수 없다는, 과거에 대한 태도, 이 절망적 태도를 다름 아닌 벤야민은 멜랑콜리라고 부른다. 3분법적 시간관에서 과거는 아무리 그리워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들어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그리워해도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데 2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내가 아무리 그리워해도 결국 죽은 사람이라는 것, 혹은 그것 자체를 부정하고, 죽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고 믿는 방식이다. 이런 죽음에 대한 태도가 벤야민이 볼 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근대적 태도, 이성적 존재가 된, 다시 말하면 3분법적 시간관에 의해서 정체성이 형성된 사람이 과거를 생각하는 방식은 내가 아무리 그리워해도 그 전제는 멜랑콜리이다. 결국 되돌아 올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

다른 하나는, 마술적 시간관이다. 마술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기억의 방식에도 마술적인 기억이 있다. 그것은 과거는 살아 있다는 것이다. 과거는 죽은 시간이 아니다. 내가 과거를 그리워하고 끊임없이 부르면, 그 과거가 온다. 그 기억의 문제를 수없이 드러내는 것이 문학에 많다.

중요한 것은, 3분법적 근대적 시간관이라는 것은 깊이 과거에 대해 멜랑콜리에 빠진 것이다. 이 과거는 근대적 역사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이미 자료화된 것이다. 살아서 변화하고 있

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고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자료가 되고, 내 맘대로 뽑아 쓸 수 있고, 현재를 위해서 뽑아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처럼 실용주의적 기억 작용을 한다.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린다. 실용주의란 말이 무서운 말이다. 험난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이는 철저히 개인의 에고이즘을 추구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용주의적으로 과거를 다루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좋은 자료가 있으면 갖다 쓰고, 이를 저항하는 요소가 있으면 갖다 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분법적 시간관에서 갖는 과거는 죽은 시간, 폐기된 시간, 자료화된 시간, 내 맘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관과 다른 시간관이다. 이것이 메시아적 시간관이다.

유대교에는 메시아적 시간관이다. 기독교 시간관과 유대교적 시간관은 다르다. 기독교적 시간관은 근대적 시간관을 그대로 지닌다. 근대적 시간관에 뿌리가 되고 있다. 종교가 문명화 과정의 한 방식이다. 자연을 지배하는 방식이다. 종잡을 수 없는 자연현상을 우리 맘대로 통제하려면 이미지로 만들어야 한다.

이미지의 성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고정을 시켜야 형상이 생기고, 형상이 생겨야 알아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어야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어야 써먹을 수 있다. 이미지를 통해서 최초로 인간이 언어가 없고, 아무 힘도 없었을 때, 우리의 오감각 중에 시선이 가장 먼저 있고, 보는 것이 가장 즉각적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보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다.

어쨌든 자기를 압박하는 거대한 세력을 통제해야 했고, 가진 것이 눈 밖에 없었다면, 눈을 통해 통제를 해야 한다. 깊이 우리 시선 속에는 흘러가는 것을 세우는 것이 시선이다. ㄴ 작업이다. 이 세우는 작업이 우리의 인간학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본다는 행위는 푸코식으로 권력이 내재되어 있다.

이미지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을 소위 문명화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권력이 가장 원초적으로 내재한 신체기관이 시선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메시아적 시간관은 유대교에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에서는 메시아가 왔다. 예수가 왔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는 그동안 수없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가짜 메시아 중 하나라고 유대교에서 본다.

유대교에서는 그 메시아들은 다 가짜이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 메시아니즘이다. 기독교는 벌써 왔다. 메시아적 시간관은 정확하게 메시아의 도래와 관계가 된다. 메시아가 언젠가 온다는 것이다. 오면 바로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한다. 그러나 메시아가 와서, 최후의 심판을 할 때, 성경에 보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전부 일어난다, 이는 재판을 받으려고,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다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는 하나의 시간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과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지나간 사건, 죽은 사람들이 없다. 다 깨어나서 심판받는다. 그런데 메시아적 시간관이 갖는 것은 3분법적 시간관이 주장하는 바, 과거의 사건들과 사람들이라는 것이 죽은 사건, 죽은 사람이 아니다. 다 심판을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면서 재판을 받는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과거는 메시아적 관점에서 끝난 시간이 아니라, 죽은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벤야민 자체가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에 의해 많이 심취해 자신의 철학적 자료를 많이 얻었다.

중요한 것은 메시아적 시간관을 벤야민이 받아들이려는 근본적 이유는 메시아적 시간관에서 볼 때 과거는 살아 있는 것이지 죽은 시간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를 통해 벤야민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3분법적 시간관이 늘 배제한 과거의 사실을 역사철학적 성찰의 대상으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소위, 자본주의 진영에서 자본주의적 시간관과, 사적 유물론에서 갖는 유물론적 시간관이 나중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3분법적 시간관을 공유했기 때문이고, 3분법적 시간관이 공유하고 있을 때, 무엇보다 과거가 죽은 시간으로 배제되어 있었지만 과거 시간이라는 것을 죽은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메시아적 시간관이다.

메시아적 시간관은 과거 사실을 살아 있는 시간관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근본적 의도는 “기억작용”이다. 다시 말하면, 3분법적 시간관이 과거에 대해 기억하는 방식과 메시아적 시간관이 과거에 대해 기억하는 방식은 다르다. 전자는 과거의 일이 부당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것은 이미 끝났다고 본다. 후자는 메시아적 시간관은 과거의 부당한 사건은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벤야민이 보려는 것이 사적 유물론자들이 억압받은 계층이라는 것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면서 시간관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고통을 받은 사람들,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과거의 문제들을 이미 끝난 사건으로 만들어버린다. 자기들이 해방시켜야 할 무엇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한다. 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설정한 해방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해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존재를 살아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간관이 어떻게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이다.

이 죽은 시간, 억울하게 당한 과거의 고통들이 면면히 살아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자꾸 요청하고 있고, 이 시대에 살아 있는 것은 그 요청에 대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임무를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간관이 필요한데, 그것은 과거는 죽은 시간이 아니고, 현재와 대화하려는 시간관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사적 유물론이 추구하고자 하는 해방의 기능이 생생하게 문제의식으로 대두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벤야민이 메시아적 시간관, 과거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재된 문제들이 우리에게 해결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살아 있는 시간관으로 받아들여지는 메시아적

시간관과 피지배계급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사적 유물론의 이념과, 이 시간과 이념이 서로 만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역사개념이 태어날 것이다. 이 역사개념 속에서 사적 유물론은 자기가 스스로 제시한 해방의 목적, 혁명의 시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왜 신학적 시간관과 사적 유물론이라는 자동인형이 만나야지만 그 적과 만나도 싸울 수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배경이 여기에 있다. 이 문제에서 다음이 언급할 것은 벤야민이 이 범주 내에서 몇 개의 시간관이 있다.

▲ 벤야민의 시간관

하나를 텅 빈 시간이다. 또 하나는 now이다. 그 다음에 소위 충만한 시간이 있고, 마지막으로 메시아적 시간이라고 하는 몇 개의 시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개념들을 전체적인 벤야민이 갖는 시간관 속에서 보다 상세하게 분류해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몇가지 시선이 역사를 텅 빈 시간의 흐름으로 볼지, 지금 여기라는 시간으로 볼지, 텅빈시간과 대비되는 충만한 시간, 도래하는 메시아적 시간으로 볼지에 대해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 텍스트를 읽는 것은 농축되어 있는 것이기에 만만치 않다.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테제를 보겠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과거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로케에 의하면 인간이 지닌 심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개별적 사물들에 대한 숭한 이기심과 함께 모든 현재가 일반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해 아무런 부러움과 선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데 있다고 한다”

위의 언급의 전제는 근대인들은 전부 미래에 대해, 근대적 시간관을 그대로 내면화하는 것이 근대인이기 때문에 근대인의 욕망체계도 근본적으로 욕망의 대상이 미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근대인들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다. 그것은 그 미래에 대한 선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속으로 하염없이 끌려들어가고, 과거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할 때가 있다.

우리는 냉철한 현실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미래에는 누구나 성취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살다가도 “어느 한 순간, moment”에 그만 두고 싶다, 같이 놀지 않을래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센터멘탈하고 멜랑콜리한 그야말로 시간의 아우라 속에 우리가 갑자기 갇히게 되면, 싫다. 부당한 무언가를 놓치게 되더라도 싫을 때가 있다. 그런 게 있다. 벤야민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3교시: 벤야민에게 있어 과거의 중요성

▲ 벤야민의 역사-과거에 중심

모든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특별한 계기, 모티브가 있다. 그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로체는 이를 인간이 갖는 독특한 심성이라고 한다. 이런 성찰을 진전시켜보려고 하면, 우리가 미래의 선망을 갖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이라는 요청이 사실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의해서 더 진한 색깔로 입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보다 과거가 우리를 더 지배하고 있고, 과거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우연스럽게 만나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들에게 선망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복은, 오로지 우리들이 숨쉬었던 공기 속,그리니깐 우리가 한때 말을 나눌 수도 있었던 사람들과 우리들 품에 안길 수도 있었던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는 과거 사실이다. 내가 예전에 사랑해서 만났던, 안아보지는 못했지만 안아보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미 과거 사실이다. 이들이 헤어진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진 것이다. 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그 때의 내가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잘 되었을, 그 당시에 어찌면 내가 욕구했을 어떤 것, 포기했을 무엇이 과거 속에 누구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근대적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숨쉬었던 공기, 과거의 대기권 속, 그런 사랑했던 사람들,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 속에 실제로 존재한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의 이미지 속에는, 과거적 행복의 이미지 속에는 구원의 이미지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벤야민적 사유이다. 그 과거가, 지나간 과거가 비록 이미지이긴 하지만 생생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그 과거가 단순한 과거 사실이 아니라 또 하나의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그 과거를 살려내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그 여인을 다시 만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거의 이미지는 구원의 이미지와 직결되어 있다.

“역사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과거의 이미지도 이와 동일한 양상을 하고 있다. 과거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은밀한 목록과 함께 간직하고 있다”

여기서 역사는 벤야민이 생각하는 역사이다. 과거는 index, 비밀스런 index이다. 과거 속에는 과거를 기억하는 현재의 우리에게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나 뚜렷하게는 알 수 없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index가 있다. 인덱스는 책 뒤에 벤야민이라고 있을 때, 실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페이지 열면 벤야민이 “있다”는 것이므로, 있음에 대한 확고한 증거이고, 확신이다.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존재가 아니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없지만 찾아보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과거는 은밀한 인덱스가 있다. 만일 우리가 과거 속을 뒤져서 현재에서 구출해내려고 하기만 하면, 분명히 구출할 대상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과거라고 하는 시간 뒤에 있는 것이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어떠한 은밀한 인덱스를 갖고 있는 것이 과거이다. 현재라는 것은 그 인덱스를 찾아내고, 살려내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다. 내 맘대로 자료화해 끌어낼 수 있는 죽은 자료가 과거가 아니라, 살아서 나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는 살아 있는 시간이다. 오늘의 현재 시간의 의미는 거기에 응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과거와 현재는 3분법적 시간처럼 2분법적으로 나누어진 다른 시간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있는 시간이다.

“우리들 스스로에도 이미 지나가 버린 것과 관계되는 한줄기의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 속에서는 이제 침묵해 버리고 만 목소리의 한가락 반향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바람은 하나의 징후, 아우라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지나갔다고 생각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들려온 것이 아닐까?

“우리들이 연연하는 여인들은, 그녀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누이들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과거의 인간과 현재의 우리들 사이에서 은밀한 목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고”

사실은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핏줄을 가진 누이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은밀한 목계” 목계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확고한 약속이다. 이 약속이 과거의 사람들과 지금의 나 사이에는 약속이 분명히 있다. 아니라면 왜 우리가 미래라는 것을 포기하면서 과거의 이미지 속으로 빠져들겠는가? 하는 이야기이다. 이를 통해서 벤야민의 사유는 개념 사유가 아니다. 이래서 아도르노에게 항상 꾸중을 들었다. 아도르노는 벤야민이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시각적 사유를 한다, 너는 너무 이미지에 빠져 있다.

벤야민에게 이미지는 중요하다. 벤야민이 말한 과거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정지시킨 이미지가 아니라 살아 있는 이미지이다. 과거 지난 시간이 떠오르는 것은 추억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나와, 실제 나와 교감하는 살아 있는 상태이다. 이것이 벤야민에게 이미지이다.

“우리들 사이에서 은밀한 목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고 또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구원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앞서 간 모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희미한 메시아적 힘이 주어져 있고 ”

메시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고통받는 자들, 폐기된 그 무엇을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들 자신에게 메시아적 힘이 내재하고 있다.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내재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요청하고, 해방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응답할 수 있다면 그들의 요청을 실현해 줄 수만 있다면 메시아가 따로 있겠는가? 바로 나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메시아적 희미한 힘이 이미 주어져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과거 이 미지이다.

“과거 역시 이 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과거의 권리”라는 말은 대단한 것이다. 이는 “상속권의 문제”이다. 벤야민이 지금 상속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상속권의 문제를 벤야민은 tradition전통이란 말로 하고 있다.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면 옛날 것, 죽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벤야민에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다. 과거의 사실이지만 현재 속에서 면면히 살아 움직여 나갈 권리가 있고, 현재는 그 권리를 성취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벤야민에게 전통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는 결코 전통주의자가 아니다. 이 전통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상속권의 문제이다. 상속권은 어떤 재산에 대한 나의 권리이다. 벤야민은 기존의 역사를 상속권을 다른 사람, 지배계급이 박탈해 간 것으로 본다. 벤야민이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전통이 흘러오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 속에는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박탈당한 상속권을 요청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전통이다.

다시 말하면, 가짜 상속자들이 말하고 있는 전통이 있고, 진짜 상속권자들이 이야기하는 전통이 있다. 전통이 2개 있다. 우리는 흔히 전통이라고 하면, 이미 상속권의 문제를 따지지 않는다. 이는 이미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사고하기 때문이다. 벤야민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의 동화를 생각하는 것이다. 한 예로, 거지와 왕자이다.

왕자가 태어났지만 마녀초청을 하지 않아 마녀가 마술을 걸어 이 아이가 궁에서 쫓겨나 이 아이는 자신이 왕자인지 모르고 거지처럼 다니다가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가 왕자구실을 한다. 결국 동화는 그 우여곡절을 거쳐 나중에 거지왕자가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궁으로 돌아간다. 잃어버린 상속권을 되찾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이 동화의 이야기구조를 많이 알 수 있다.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상속권의 문제.

우리가 얼마나 상속 권리에 대해서, 적자라는,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정치적인 현상은 투표 시기에 국민여러분은,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 상속권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나면 우리를 상속권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현상이다. 민주주의의 가식성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상속권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우리는 한국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한국의 주인이다. 상속권의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하고, 정치의 문제도 사실 여기에 있다. 국가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 음모 중의 하나는 당신은 한국에 속한 사람이다. 국가가 무엇을 하면 너는 따라와야 한다는 식이다. 민주주의는? 내가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고, 상속권은 나에게 있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벤야민은 “누가 역사의 주인이냐?”의 문제를 말한다. 벤야민의 비판하는 역사는 서자인 것이 적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배계급이고, 벤야민이 다시 역사기술을 하려는 것은 이 상속권을 되찾아주려는 것이다.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되찾아주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과거 속에 있는 것이다. 과거 속에 들어가서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고통당하다 상속권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죽은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해결해주면 2가지가 동시에 실현된다. 그들의 상속권도 되찾고, 동시에 지금 나의 상속권도 되찾게 된다. 벤야민이 이야기하는 전통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여기서 바로 과거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런 문제이다. 이 안에 커다란 역사적 요청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테제가 엄청난 파워를 텍스트 안에 가지고 있다.

벤야민의 사진을 보면 이중성이 있다. 멜랑콜리하기도 하면서, 그 무엇으로도 범접할 수 없는 단호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벤야민의 모습이다. 글은 메타포적이고 유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굉장히 폭발적이다. 역사전체라고 하는 것을 전복하려는 생각을 가진 점에서 이 텍스트 속에는 엄청난 것을 갖고 있다. 텍스트는 고요하지만, 심지가 달린 쏫대 같이 점화하지 않으면 쏫대일 뿐이지만, 독서는 점화인 것이다. 인용한다는 것은 그 텍스트를 폭발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인용문을 우리의 생각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벤야민에게 인용은 그 텍스트를 와해시키는 것, 폭탄을 집어넣는 것이다. 텍스트는 벤야민이 이야기하기를, 결을 거슬러서, 거꾸로 읽어야 한다.

따라서 읽으면 폭발하지 않지만 독서는 거꾸로 읽는 것이다. 이는 역사읽기이자 텍스트 읽기, 세상보기이다. 이 시선으로 파리를 바라보고, 유년을 바라보고, 피테, 프루스트, 카프카의 텍스트를 읽는 것이다. 또 하나는 씹어지지 않는 것을 읽기이다. 거꾸로 읽을 때만 읽을 수만 있는 것이다. 텍스트는 2층위가 있다. 따라서 읽으면 안 보이는 층위가 있지만 문자층위를 표층층위를 거꾸로 읽으면 떠오르는 층위가 있다.

벤야민에게 책을 읽는 다는 것이 무엇이나? 벤야민의 글은 어떻게 보면 독서 일기이다. 끊임없이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쓰는 것이지만 그 쓰기는 거꾸로 쓰기이다. 역사학자들은 과거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앞서 간 모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희미한 메시아적 힘이 주어져 있고 파

거 역시 이 힘을 요구할 권리 즉, 상속권을 되돌아 달라고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구는 값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역사적 유물론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값싸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현될 것이 아니다. 사적 유물론자는 누구보다 이 어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